

언 어 연 구¹⁾

(The Study of Languages) (1898/9?)

제임스 조이스 著

김 종 건 譯

여기 ‘언어 연구’ 역시 조이스가 대학입학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밟던 1898-9년에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중에 쓴 글이다. 그의 글의 스타일은 더욱 강력하고, 미적인 요소가 덜 해졌다. 메미(Memmi)의 ‘프레스코’벽화에 대한 언급은 ‘힘’에 관한 에세이에서 어떤 글보다도 더 장식적이며, 메슈 아놀드에 대한 논평은 더 완고하다. 비록 언어 연구는 조이스가 평생의 강한 애착을 둔 분야라도 이 글에서의 언어 연구에 대한 논의가 그의 문학적 전력을 다 보여주진 못한다.

산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는 ‘7개의 지구과학(Seven earthly Sciences)’이라 불리는 7개의 그림이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쪽 훑어보면 제일 처음 것은 ‘문장술(Art of Letters)’이란 그림이고, 일곱번째는 ‘산술(Arithmetic)’이란 것이다. 제일 처음 것은 더 직접적으로는 문학의 기술적 부분을 언급하기에 흔히 문법(Grammar)이라 불린다. 메미가 이런 배열을 한 것은 과학에서

1. 이 수필은 스테니슬라우스 조이스의 일기 속의 10페이지 반의 조이스 자신의 자필원고로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코넬대학 도서관의 조이스 문서 속에 보관되고 있다.

과학으로, 문법에서 수사(Rhetoric)로, 수사에서 음악으로, 기타 무엇에서 산술로의 점차적인 진행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주제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 가정을 내린다. 첫번째 가정은, 주가 되는 과학은 문법이며,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최초의 본래적인 과학이 되며, 산술은 정확히 다른 여섯 중의 극치가 아닌 오히려 가장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번호 매겨진 표현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그의 가정은 아마 첫번째와 같은 말이 되겠지만, 문법, 즉 다시 말해 문장술은 과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첫번째 가정은, 인간의 지식에 있어서 문법을 첫번째로, 산수를 가장 마지막 것으로 분류한다. 또한 두번째 가정은, 이미 말한대로, 문법을 과학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가정은 많은 저명한 수학자들의 견해에 반대되는 것이다. 수학자들은 문학이 과학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문학을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하려 하는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여기도록 영향을 미친다. 문학은, 단지 근거를 보더라도, 문학이 갖는 문법적인 것들이나 특성들에서는 과학이 된다. 그러나 그런 처리는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의미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학자들이 문학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하기 바란다. 인간은 자신의 동료와 일상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인간은 말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텔리의 배출을 위해 수학 연구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수학은 인간정신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발전시키며 정확하고 정돈된 규칙적 방법에 대해 열정을 갖게 하여, 우선적으로, 지적 전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 과학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결코 아닌 우리는, 과학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 때문이라기 보다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의무를 갖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당대의 저명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매수 아낀다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갖는다. 더 많은 순수 학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학교육의 최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정확성과 확고한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언어 연구를 모두 그들의 학문 하위에 있는 단순히 마구잡이식의 우연히 행하는 연구로 간주하

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행위에 대해 언어학자들은 항의하도록 해야 하며 확실히 그들의 방어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수학연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실제로 수학은 규칙적인 절차에 따르며 실제적인 지식의 과학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문학은 언어의 더욱 고상한 측면에서, 가상적이며 개념적이다. 이것은 과학과 엄격히 구분 짓는다. 그러나 수학은, 문학의 매력적인 형식처럼, 수학적인 순서와 균형으로 표현되고 널리 알려진 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학은 수학의 정교함과 규칙성을 나누어 갖는다. 더욱이 우리가 전술한 사항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킬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나, 언어와 문학 연구를 위한 변호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구가 수학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또한 우리가 문학을 변호한다고 해서 수학보다 문학을 더 중요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언어 연구가 가상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사고를 다루거나 사실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시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첫째, 어떤 언어를 연구하든 처음에 시작하면 서서히 조심스럽게 확실한 근거를 찾아 연구가 진척되기 때문이다. 언어의 문법, 철자법, 어원은 알려진 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수학적 계산표와 같은 방식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행해지는 연구들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까지의 언어는 계속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통사론, 언어의 스타일과 언어의 역사와 같은 고차원적인 부분은 환상적이고 상상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재 언어 연구는 수학적 기초에 근거를 두고, 그 기반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결국 통사론과 언어 스타일에서 동시에, 처음에 정확성을 삽입시켜 나온 정확성이 늘 존재한다. 그래서 스타일과 통사론은 너저분하고 미적인 생각들을 단순히 꾸며서 서술한 것이 아닌 분명한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때로는 사실을, 때로는 생각을, 정확히 표현한 방식들이다. 생각을 표현할 때는 감상적인 말이나, 과장된 말, 욕설을 퍼부을 때 미적인 것을 더함으로써 허를 펴고 울리지 않고 말을 하기에 충분한 구개음에서 그 말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두번째로, 우리는 과학자들의 보증되지 않는 '이유(since)'를, 결코 인정하

진 않겠지만, 만일 인정하러 마음먹었을 지라도, 아주 심도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할지도 모를 시와 창작을 멸시하거나 그 명칭조차 전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선 안된다. 도서관에 과학 서적만 있어야 하는가? 베이컨과 뉴턴이 책장을 독차지해야 하는가? 또한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책이 놓일 자리는 없는 건가? 신학은 과학이다. 그렇지만 카톨릭 교도나 영국 국교회 신도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충실하더라도 시를 공부하지 못하게 금기시 하는가? 또한 카톨릭 교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영국 국교회 교회당을 추방하려 하고 영국 국교회가 '기독교의 해'를 금지시키겠는가?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문체, 통사론, 시, 웅변술,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진리의 챔피언이며 전형들이 된다. 그래서 산타 마리아의 성당에 있는 수사의 그림에서는 진리가 거울속에 반사되어 보여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학파의 나쁜 동기에서 진정한 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이 세계의 문명을 더욱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부과되어야 한다. 과학은 문명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나 파멸시킬 수도 있다. 윌카 코린즈(Wilkie Collins)의 소설 『심장과 과학』의 중심인물인 무자비한 생체 해부학자 벤주리아 박사를 살펴보자. 위대한 생체 해부학에 의해 그가 더 향상되었는가? 심장과 과학이라니! 그렇다. 냉정한 과학에는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 커다란 위험은 실제로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상처입은 동물들이 놀라서 그(벤주리아 박사)의 다리사이로 도망쳐 어둠 속으로 달아날 때, 구겨진 얼굴로 비탄에 잠겨 실험실 문 앞에서 냉정히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자. 과학이 한편으로는 인간과 만물에게 영원히 커다란 물질적 변화를 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지 말라. 만일 과학이 갖고 있는 자체의 이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물어 인간에게 이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과학 자체의 이로움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모든 점에서 과학은 최초의 가장 본연의 인간인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무시하고 극의 세계 속에서 가장 흥미 없는 역할을 맡은 무한히 별 볼일 없는 배우로 간주한다. 또한 한편으로 과학이 신적인 대상에 관심을 돌릴 때, 과학이 확고하고 이성적인 추론을 끝

어내기 위한 유용한 책략으로서 발전한다고 해도 어쨌든 인간내면에서 믿음과 숭배의 마음이 솟구치게 하라.

그러기에 의견이 안 맞는 수학자들을 제외시키고 여러 언어들에 대한 연구, 주로 우리 자신의 언어연구에 관해 중요한 것을 얘기해 보려한다. 첫째째로, 언어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는 많은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말을 예전과 비교할 때, 한 종족의 언어에 미친 외적인 영향의 효과를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다. 때로는 ‘악한(villain)’이란 말이, 지금은 사라진 관습으로 인해, 그 의미가 아주 변화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정복의 힘이 본래는 사용되지 못하게 된 어법이나 기원(어원)이 되는 말이 완전히 폐지됨으로 인해 입증될 수 있다. 유일무이한 귀중한 어구들은 제외하고 슬픔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말들은 자연히 안 쓰게 되었다. 두번째로, 이러한 언어 지식은 우리의 언어를 더 순수하고 명확하게 하여 언어의 문체와 작문에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세번째로, 우리가 문학에서 마주하게 되는 명사들은 우리에게 전해 내려와 가볍게 취급됨이 없이 우리가 주의(관심)를 갖기에 앞서 유서 깊은 것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문학에 나타난 명사들은 언어변이의 이정표들이며, 언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언어변이 과정이 발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언어변이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언어의 폭이 넓어지고 향상되게 한다. 비록 많은 연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완전히 그 길을 벗어나 평탄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질지라도 여전히 고도의 수준에서 계속 그 연구가 진행된다. 그러기에 이런 명사들은 모방과 참고를 위한 기준이 되며, 영어의 권위자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역시 그들이 그 연구를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그 이유로 커다란 관심을 둘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사들은 가치가 있다. 네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정확한 언어 연구는 언어의 권력과 위엄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며, 이러한 언어의 권력과 위엄은 위대한 작가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해서 특권을 갖고 그들의 사상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적절한 사상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들의 언어 연구는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우리의 지식과 사상의 축적을 더해 줄뿐만 아

나라, 어휘를 더해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들의 언어에 대한 예리함이나 힘을 공유하게 해 준다. 사람들이 흥분할 때, 그들의 언어감각이 없어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마구 지껄이며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일이 얼마나 흔히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더 많은 소리와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영어로 가장 일상적인(평범한) 생각들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느끼는지 보라. 만일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잘못들을 수정하려면, 우리는 언어 연구 자체를 해야 한다. 대단히 많은 언어 연구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어법을 접속하게 되면서 우리 언어에 있어서 멋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예전에는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접할 수 없었던, 여기서 더 확장될 순 없지만 단지 변천해 가는 미적인 표현들을 새로 접하게 된다.

우리가 너무 우리자신의 언어(영어)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고전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작가들은 겸손히 자신이 회람어를 모르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라틴어의 주의 깊고 매우 분명하게(정확하게, 똑바로) 진행된 연구는 분명 매우 유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라틴어의 연구는 우리가 영어의 확고한 원리가 되는 언어와 친근하게 되어서 많은 단어의 파생어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파생어들을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더 진정한 의미를 갖는 말들이 되기 때문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라틴어는 학자와 철학자들의 인정된(공인된) 언어이며 지식인들의 무기이다. 그들의 책이나 사상들은 단지 번역 매체를 통해 알려질 따름이다. 더욱이, 놀랍게도 라틴어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것이나 조금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라틴어 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계속 인용되고 일상적 편의를 위해 우리는 라틴어 연구를 재촉해야 한다. 그러한 때 역시 라틴어는 교회의식의 유일한 언어(통일된 단일언어)이다. 더욱이 그것은 라틴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큰 지적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 보다 더 강한 의미를 주는 간략한 표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라틴어 어구나 단어는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매우 많은 단어의 생성과 관련이 있으나, 라틴어 자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영어로는 어떤 단어로도 적절히 표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버질의 라틴어는 매우 관용적인 표현이 많아 번역을 할 수 없다고 말하여 진다. 분명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언어를 적절한 영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판단과 표현에 좋은 연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치가 떨어진 (퇴화된) 형식의 학생들의 언어인 라틴어는 더 우수한 형식에서 루크레티우스, 버질, 호레이스, 키케로, 프리니, 태시투스의 언어이고, 이들 모두는 위대한 인물들이며, 이들 모두는 수천년동안 그들의 높은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지켜왔다. 그들은 더욱이 광대한 공화국의 작가들로서 흥미롭다. 그 공화국은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크고 거대한 공화국으로 5백년동안 그 당시의 그러한 거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행동의 본거지이며 지브랄터에서, 아라비아와 이방인을 싫어하는 브리튼까지 알려져 사방에 그 힘의 명성이 퍼지고 사방에서 그 군대의 선두의 정복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여기서 끝난다.)

〈고려대학교〉

☆ 역 주 : 엘먼이 편집한 『조이스 비평문집』에는 모두 57개의 논문이 실려있다. ‘언어연구’는 그 중 3번째의 것으로 비평가들에 의하여 높이 평가 받는 논문이다.

조이스의 모든 작품 영역은 그의 언어 천재로 넘친다. 여기 번역된 ‘언어연구’에 보인 조이스의 언어에 대한 감동과 해박한 지식은 그의 젊은 나이(16-17세)에도 불구하고 실로 경이적이다.